

## 하남산단 '한국스티로폴' 김성모 회장의 송년가



김성모(앞줄 왼쪽 다섯번째) 한국스티로폴 회장이 30일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생산공장에서 직원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위기타개를 결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위기는 기회... 내년엔 더 희망차게”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매출은 근근이 채웠지만, 워낙 생산비가 상승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니다.”

(주)한국스티로폴(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하남산업단지) 김성모(57) 회장은 “십수년 동안 고락을 같이했던 40명의 직원들은 회사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떠한 불황에도 한명도 빠짐없이 다 안고 갈 각오”라고 말했다. 한국스티로폴 외에 씨피코리아 등 한 회장이 경영하는 7개 계열사 5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올해 한평의 나 오가 없었다.

지난 85년 설립돼 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스티로폴은 올 한해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좋았다. 기존 주택에 비해 최대 80%까지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초경량 단열재 ‘인슈

### 원자재값 폭등에 공장가동률 ‘뚝’ “직원들 손잡고 불황 이겨내야죠”

블록’을 출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스티로폴을 재료로 만든 인슈블록은 기존 시멘트 벽돌이나 블록에 비해 단열·방수·방음 등의 효과가 탁월하고 공기과 건축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건축업계로부터 ‘혁신적인 미래형 건축소재’라는 평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고공행진을 벌여온 국제원유값 때문에 올 중반을 넘어서면서 채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스티로폴의 원자재인 석유값이 지난해 1당 150만원에서 올해 220만원까지 오르는 등 원자재 값이 전체 매출의 80%까지 육박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앞선 데 댈친 격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하반기부터는 블록수요가 급감,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서 “100%에 달하던 공장가동률이 40~50%대까지 곤두박질했다”고 말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김 회장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댄 뒤 전사적인 원가절감, 폐품 재활용 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직원들은 스스로 특근이나 휴일근무를 줄이는 대신 철저하게 불량품을 관리해 나갔다.

힘겨운 한해를 직원들과 손잡고 헤쳐온 김 회장은 불황에도 굴하지 않고 내년 신제품·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선종적인 인기를 얻은 인

슈블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제로(ZERO) 하우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마케팅을 전개, 10조원대에 달하는 국내시장 제패에 나선다는 청사진도 세워놓았다.

최근 개발돼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는 스티로폴 ‘포장용 접이식 박스’에도 김 회장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의 스티로폴 포장에 일회용이어서 비용부담과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키지만, 접이식 박스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반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김 회장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연구개발을 게을리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자세로 열심히 뛰면 ‘블루오션’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신이 넘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2009 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더할 나위 없는 멋’ The Clue

내년 9월에 열리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 5일)의 전시주제가 ‘더할 나위 없는 멋’과 ‘The Clue’(실마리)로 결정됐다. 재단은 폭넓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대

회 사상 처음으로 국내 홍보용 ‘더할 나위 없는 멋’과 국제 홍보용 ‘The Clue’로 전시주제를 이원화시켰다.

(관련기사 3·16면)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해 디자인비엔

날레 전시 기간을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광주세계엑스포(10월9일~11월5일)와 맞춰 당초 계획(30일)보다 19일 늘어난 49일로 확정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0일 재단 회

의실에서 열린 제109차 이사회를 통해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와 기본 전시 개요를 확정, 발표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재단의 인력을 줄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하나

### 정부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 내년 1월로 연기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가 당초 예정이었던 이번 연말을 넘겨 내년 1월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등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31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보고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오는 12월말까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 대책 마련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재정, 기술, 환경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는 연말을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을 31일 청와대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최종안은 늦어도 1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호남고속철도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수정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다. 전문학적인 재정 수요와 전 구간 동시 착공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일거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호남권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다 정부 차원에서 호남 배려에 대한 진정성 확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는 방안이 기본계획 수정안에 담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교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31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호남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5개 공기업 내년 투자 9조원 늘려

###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5개 주요 공기업들이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9조원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이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9개 금융 공기업은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9조원(18.5%) 증가한 57조원이다.

고속도로·철도·혁신도시 등 SOC 투자는 올해 34조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0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전건설,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는 12조1천억원에서 14조7천억원으로, 농업·문화 등 기타 투자는 1조7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한다.

기관별 보면 대형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15조8천112억원으로 10.4%, 토지공사는 12조6천996억원으로 26.

3%, 철도시설공단은 6조987억원으로 31.8%, 도로공사는 2조7천961억원으로 19.3%를 늘렸다.

한전과 발전회사들은 이날 보고에서 발전 설비투자액과 전산 및 업무자동화를 포함, 전체 투자를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12조4천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61.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75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100억달러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은 올해보다 7%포인트 높은 61%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예산을 조금 더 빨리 집행하기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별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기업은 올해보다 대출지원을 25조원, 보증·수출보험 지원을 55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키?  
아이 성장클리닉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